

교회의 회복

(목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교회의 타락 —

바빌론의 원칙과 이 원칙을 이기는 길

성경: 계 17:1-6, 18:4, 7, 레 1:3-4, 9, 6:10-13

- I. 바빌론(히브리어로 ‘바벨’)의 원칙은 사람이 벽돌들로, 곧 사람의 능력으로 땅에서 하늘에 까지 닿는 무언가를 건축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 창 11:1-9.
- A. 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 반면에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의 발명품이자 생산품이다.
 - B. 바빌론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의해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 비교 고전 15:10, 58.
 - C. 하나님의 건축물은 사람이 만든 벽돌들로, 인간적인 수고에 의해 건축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신 돌들로, 신성한 일에 의해 건축된다 — 고전 3:12.
- II. 바빌론의 원칙은 위선이다 — 계 17:4, 6, 마 23:25-32, 눅 12:1.
- A. 아간의 죄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외모를 위해 자신을 개선하려고, 곧 자신을 더 낮게 보이려고 바빌론의 아름다운 겉옷을 탐냈다는 것이다 — 수 7:21.
 - B. 이것은 성령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였다 — 행 5:1-11.
 - 1. 그들은 주님을 그다지 많이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이들과 보이기 를 원했다. 그들은 단지 가장하고 있었다.
 - 2.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서 행동했다.
 - C. 우리가 우리의 실지 상태와 겉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이다 — 마 6:1-6, 15:7-8.
 - D.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신부의 원칙이 아니라 창녀의 원칙으로 행하는 것이다 — 요 5:41, 44, 7:18, 12:42-43, 고후 4:5, 살전 2:4-6.
- III. 바빌론의 원칙은 자신을 과부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며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다 — 계 18:7.
- A. 그러한 타락한 믿는 이들만이 자신을 과부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현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과부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께서 이곳 세상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있지 않다 — 마 9:14-15, 눅 18:3.
 - B. 우리의 생활에서 지나친 것은 무엇이든 사치이며, 그것은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다 — 딤후 6:6-10.
- IV. 바빌론의 원칙은 창녀의 원칙이다 — 계 17:1-6.

- A. 바빌론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 창 11:4.
1. 우리 주님의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을 취하여 교회를 명명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 비교 계 3:8.
 2. 순수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는 자신의 남편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 — 고후 11:2, 고전 1:10.
- B. 바빌론은 혼돈을 의미한다 — 창 11:6-7.
1.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여러 종류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몸을 위하여 유일한 가르침을 가진 한 사역 아래서, 오직 한 생각과 한 입을 가져야 한다 — 롬 15:5-6, 고전 1:10, 빌 2:2, 딤후전 1:3-4.
 2.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을 때는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는 오늘날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안에는 신성한 하나가 있다 — 요 4:23-24, 엡 4:3.
 3. 우리는 어떠한 분열도 감히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남편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아내인 우리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 마 19:3-9.
- C. 바벨에 있던 반역적인 사람들에게는 흠어짐이 있었다 — 창 11:8.
1. 고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 이것은 바벨에서 흠어진 것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 신 12:5, 16:16.
 - a.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이 유일한 장소, 곧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가 여러 세대 동안 지켜졌다 — 시 133편.
 - b.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한나라는 진정한 터, 곧 지방이라는 터를 상징한다 — 행 8:1, 13:1, 계 1:11.
 - c. 바빌론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 터 위에' 있어야 한다.
 2. 경배를 위한 또 다른 중심지를 세운 여로보암의 죄는 분열의 죄이다. 이 분열의 죄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왕국, 곧 제국을 가지려는 사람의 야심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 왕상 12:26-33.
- D. 바빌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들에 속한 것들의 혼합이다.
1.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불태웠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가져갔으며, 그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그의 우상들의 신전에 두었다 — 대하 36:6-7, 스 1:11.
 2. 신약에서 이러한 혼합은 큰 바빌론으로 확대된다 — 계 17:3-5, 비교 21:18, 22:1.

V.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백성이 변절한 교회인 바빌론에서 나와서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 계 18:4-5.

- A.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의 자녀들은 바빌론의 특징을 가진 그 무엇에도 참여할 수 없다 — 고후 6:17-18.
- B.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바빌론의 원칙을 더 미워하신다 — 계 17:5-6, 18:4-5, 19:2.
- C. 어중간하고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바빌론이라고 불린다.
1.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을 향해 절대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이다 — 계 3:16-19.

2.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심판할 때에만 우리도 바빌론의 원칙을 미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 — 비교 계 2:6.
 3.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영광이나 영예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 요 7:18, 12:26, 빌 1:19-21상, 비교 출 28:2.
 4. 주님은 우리에게 바빌론의 원칙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고 추구하기를 요구하신다.
- D. 하나님께서 창녀를 심판하시고 그녀의 모든 일을 산산조각 내실 때, 그리고 그녀의 모든 어둠함과 그녀가 대표하는 원칙을 던져 버리실 때, 하늘에서부터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수많은 음성이 있을 것이다 — 계 19:1-4.

VI. 바빌론의 원칙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한다. 번제물은 온전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1:3, 9, 요 5:19, 30, 6:38, 7:18, 8:29, 14:24, 고후 5:14-15, 갈 2:19-20, 빌 1:19-21상.

- A. 우리는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가 된다. 이러한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흠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미덕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분과 하나 될 필요가 있다 — 레 1:4.
- B.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안수할 때, 우리가 안수한 바로 그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께서(고전 15:45하, 고후 3:6, 17, 4:5) 즉시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번제물의 삶을 반복하실 것이다(비교 출 38:1).
- C.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위의 석쇠 위에 있는 것은 번제물이 이 시대의 어두운 밤을 거쳐 아침까지, 곧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태우는 장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6:9, 뵤후 1:19.
- D. 번제물을 바치고 남은 결과인 재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이다(레 6:10). 제사장이 세마포로 만든 의복을 입는 것은 재를 다룰 때 섬세함과 순수함과 깨끗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장이 다른 의복을 입고 재를 진영 밖으로 옮기는 것(레 6:11)은 번제물의 재를 위엄 있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 E. 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끝나게, 즉 재가 되게 한다(갈 2:20상). 재를 제단 동쪽 옆, 해가 뜨는 곳에 둔 것(레 1:16)은 부활을 함축한다. 번제물과 관련하여 재는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롬 6:3-5).
- F. 하나님은 이 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이 재가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가 감소되어 재가 될 때, 삼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롬 12:2, 고후 3:18). 재인 우리는 부활 안에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귀한 재료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된다.
- G.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그 위에서 화목제물의 기름 덩이를 태워야 한다.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 레 6:12-13.

1. 제사장이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는 것은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갈망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역은 거룩한 불에 땀감을 더함으로 불이 잘 타올라 하나님의 음식인 번제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침은 새롭게 불 태워지기 위한 시작을 의미한다 — 레 6:12-13, 비교 눅 12:49-50, 롬 12:11, 딤후 1:6-7.
2. 번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화목제물을 달콤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속적인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비교 롬 12:1) 기초가 놓일 때, 화목제물의 기름 덩이를 태우는 것으로 상징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달콤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모두 불에 태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것과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모두 불에 태워지는 문제임을 의미한다 — 레 6:12-13.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바빌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까지와 21장 9절과 10절에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큰 창녀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신부라 불린다. 17장 1절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21장 9절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17장 3절은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21장 10절은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 특별히 두 여인을 지적하여 대조를 이루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상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먼저 창녀에 관해 보기로 하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언급된 창녀는 바빌론이다. 하나님은 그녀가 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바빌론이 대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빌론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계속 바빌론을 처리하고 계시는가? 왜 바빌론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어린양의 아내가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성경 안에 있는 바빌론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시기를 바란다.

‘바빌론’이라는 명사는 ‘바벨’에서 나왔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 중에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 바벨탑의 원칙은 바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무언가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다. 벽돌과 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벽돌은 사람이 발명한 것이며 사람의 산물이다. 바빌론의 의미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까지 닿는 한 탑을 세우는 것이다. 바빌론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다. 바빌론은 거짓 기독교를 대표한다. 거짓 기독교는 성령께서 권위를 가지시도록 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사람의 노력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한다. 모든 것이 사람이 구운 벽돌이고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이다. 이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타고난 재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들은 진실로 주님께 “주님, 당신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영적인 일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들은 이쪽에서 저

쪽으로 통하는 한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한 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용납하실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재능이 있어서 신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벽돌이다! 어떤 사람은 매우 총명하여, 약간의 도움을 받고 약간의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 즉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벽돌이다! 어떤 사람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를 청하여 교회의 사무를 보도록 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벽돌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벽돌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을 위한 지위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며, 땅에 속한 것은 결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사람의 문제는 바로 사람이 심판 아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재와 같고 진흙과 같음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사람은 높이 세우려고 하지만, 하늘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 사람이 세운 탑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은 여전히 하늘을 만질 수 없고, 하늘은 여전히 사람 위에 있다. 사람이 아무리 기어오르고, 아무리 높이 세운다 해도, 그리고 설령 그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는 여전히 하늘을 만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을 파괴하신 것은 바로, 사람 자신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구약에서 이 바벨의 원칙을 잘 보여 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 첫 번째로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었다. 그는 무슨 죄를 범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탐내어 가졌나이다”(수 7:21). 바빌론은 시날 땅에 있었고, 시날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바빌론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바빌론의 외투 한 벌이 아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이다. 아름다운 외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름다운 옷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입는 옷을 말한다.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을 단장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려고 한다. 바빌론의 외투를 탐했던 것은 바로 치장하고, 체면을 세우고, 돋보이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바로 아간이 범한 죄였다.

신약에 와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 첫 번째로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은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임을 말해 준다. 그들은 무슨 죄를 범했는가? 그들은 성령을 속였다. 그들은 그다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대단히 사랑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서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외투이다.

그러므로 바빌론의 원칙은 위선이다. 실지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사람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런 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의 위험은 바로 외면적으로 영적인 모양을 가장하는 것이다. 수많은 영적인 태도들이 다 위선적이고, 수많은 긴 기도들도 위선적이며, 수많은 기도하는 듯한 목소리도 위선적인 것이다. 실지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외면적으로 그렇게 가장하는 이것이 바빌론의 원칙이다. 우리가 우리의 실지 상태와 걸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선을 행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신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위선적인 일은 창녀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 신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위대한 일일 것이다. 바빌론의 원칙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람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빌론의 외투의 죄이고,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이다. 거짓된 헌신이 죄이고, 거짓된 영성도 죄이다. 무릇 참된 경배는 영과 진실함 안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한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는 바빌론의 또 하나의 상황을 말한다.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

로서 앉아 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왕의 지위에 앉았고, 과부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으며, 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 있다.” 그녀는 정결함을 잃어버렸고 합당한 목표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원칙이며, 이것이 바로 부패한 기독교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빌론에 관한 다른 많은 것들을 보여 주는데, 특별히 바빌론이 누린 사치스러운 것들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깨워야 한다. 한 면으로 우리는 과학의 발명들을 신뢰한다. 우리는 필요할 때 많은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다. 바울이 “세상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고전 7:31)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목적은 단지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모든 사치스러운 향락은 다른 문제이다. 모든 사치품들을 거절하고, 육체를 과도한 누림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복, 음식, 거처 등을 막론하고, 과분하거나 필요를 초과한 것은 바로 사치이며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필요 이상의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필요의 원칙에 따라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탐욕에 따라서 생활한다면, 바빌론의 원칙 아래 있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바빌론의 원칙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섞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섞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위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며,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은 혼란한 기독교이자 부패한 기독교이다. 우리는 바빌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였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바빌론의 특징을 가진 어떤 일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섞여 있는 것, 사람의 재능과 하나님의 일이 함께 섞여 있는 것,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섞여 있는 모든 상황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바빌론의 특징을 가진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 없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영의 깊은 곳에서 그들 스스로를 바빌론과 분별시키는 것과 바빌론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바빌론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은 바벨탑에서 시작되었고, 나날이 그 세력이 커졌다. 그러나 최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일들이 있는 후에 나는 하늘에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창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어, 그 여자의 손으로 흘린 그분의 노예들의 피에 대해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무궁히 올라갔습니다. 또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창녀를 심판하시고 그녀의 모든 일을 산산조각 내실 때, 그리고 그녀의 모든 어떠한 것과 그녀가 대표하는 원칙을 던져 버리실 때,

하늘에서부터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수많은 음성이 있을 것이다. 신약 전체에서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몇 번의 할렐루야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바빌론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8절까지는 바빌론이 멸망하고 심판받은 원인을 말한다. 즉 바빌론의 죄행과 그녀가 받은 심판의 결국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심판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겠지만, 영적인 심판은 오늘 우리가 집행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수많은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고 하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할렐루야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바빌론의 원칙은 혼란이요, 부정함이다. 그래서 창녀라고 부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바빌론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대단히 중요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장 18절은 “땅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19장 2절은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창녀”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원칙을 대단히 중요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존재가 아직도 그분께 얼마나 절대적이지 않은지를 보아야 한다. 절대적이지 못하고 어중간한 모든 부분이 다 바빌론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절대적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심판할 때에만 우리도 바빌론의 원칙을 미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영광이나 영예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빌론의 원칙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고 추구하기를 요구하신다. *(위치만 니 전집, 34권, 영광스러운 교회, 143-150쪽)*

바빌론의 원칙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 자신을 담는 우주적이고도 단체적인 그릇을 가지시는 것임을, 그리고 이 그릇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임을 보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명명되는 마지막 성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완결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이전에 바빌론이라 불리는 모조품이 있다. 성경에서 바벨이나 바빌론이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11장이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훨씬 나중에까지 언급되지 않는다. ‘바벨’은 바빌론의 히브리어 표현이다. 바벨이 곧 바빌론이다. 바빌론이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살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살아 있는 성을 갖는 것이며 이 성이 그분을 담기 위한 단체적인 그릇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모조품을 만들어 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 모조품이 바벨이라는 도시였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내기 원함

바벨과 관련해서 창세기 11장에서는 네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볼 수 있다. 첫째로, 그 당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려고 했다(4절). 사람이 하늘까지 닿는 탑이 있는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은 그 이유에서였다. 바빌론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내기에 좋은 곳이다. 바빌론의 목적은 사람을 위하여 이름을 내는 것이다.

혼돈

둘째로, 바빌론은 혼돈을 의미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혼돈되게 하시려고, 즉 혼란에 빠뜨리시려고 오셨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러한 혼란케 함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내리고 힘쓴 것 때문에 내려진 형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하심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나는 나의 언어로 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말한다. 나는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다르다. 나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또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형벌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다. 교파들은 같은 것을 말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장로교인들은 침례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침례교인들 역시 장로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감리교인들은 감리교인들을 이해하지만, 성공회 교인들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각 교파는 다른 교파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분열과 혼돈의 상황은 하나님에게서 온 형벌이다. 성경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바벨과 같이 어지럽거나 혼돈되지 않고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계시한다. 바벨의 두 번째 특징은 혼란케 함과 혼돈이다. 바벨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분은 반역적인 인류에 대해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셨다.

흩어짐

바벨에 있던 사람들과 관련한 세 번째 요점은 그들 모두가 흩어진 것이다. 모이는 대신 그들은 흩어졌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흩어짐이 아닌 모임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음을 계시한다. 고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 년에 세 번 함께 모였다(신 16:16). 그들에게는 ‘함께함’, 즉 모임이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지만, 바벨에는 흩어짐이 있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첫 번째 요점은 사람이 이름을 내리고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점은 각종 그리스도인 단체들과 교파들 사이의 오해이다. 세 번째 요점은 흩어짐이다. 각자가 자기의 길과 방향으로 간다. 자기를 위하여 이름을 내리는 사람의 시도, 혼돈과 흩어짐이 바벨과 관련한 주요 요점들이다. 이 모든 요점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오늘날의 바빌론이 되었기 때문이다.

혼합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시기 위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좋은 땅에 들어갈 때, 그분께 경배할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그들에게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가야 했다.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실 한 장소를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시려고 하셨다(신 12:5). 그들 모두는 주님께 경배할 유일한 곳으로 와야 했다. 이것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가 여러 세대 동안 지켜진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이 유일한 장소에 의해서였다. 이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을 채웠다(왕상 8:10-11).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황금기였다.

이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불태웠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가져갔으며, 그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그의 우상들의 신전에 두었다(대하 36:6-7). 이 어떠한 모순인가! 이것은 바빌론 안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이 있음을 보여 준다. 바빌론에 있는 우상의 신전 안에도 하나님의 집에 속한 그릇들이 몇 개 있다. 이것은 바빌론과 관련된 네 번째 요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에 속한 것들의 혼합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된 그릇들이 우상의 신전에 있었다.

신약에서 이 혼합은 확대된다. 영 안에서 요한은 큰 바빌론의 이상을 보았다(계 17:3-5). 바빌론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온갖 것들로 꾸며지고 치장되었다. 새 예루살렘은 세 가지 보배로운 재료들, 곧 금과 보석과 진주로 건축된다(계 21:18-21). 큰 바빌론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다. 그녀의 외양은 그녀가 새 예루살렘과 똑같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남긴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귀한 재료들로 견고하게 건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이러한 보물들을 장식으로 치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끌기 위한 속임수이다. 그것은 창녀의 거짓된 모습이다.

변절한 기독교계와 참교회 사이의 차이는 전자는 혼합인 반면에 후자는 순수하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혼합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순수하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은 그 성이 순금이라고 말한다. 또한 생명수의 강은 수정처럼 맑다(계 22:1). 그것은 혼합이 없이 전적으로 순수하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이 악한 여자, 즉 악한 바빌론은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4절)하였다. 겉보기에 그것은 금이지만 속에는 악한 것들이 있다. 이것이 혼합이다. 바빌론에는 귀용 부인이나 페넬롱 신부나 로렌스 형제와 같은 영적인 인물들, 즉 보석들이 있어서 바빌론은 어떤 외관을 띠게 된다. 그러나 그 속은 모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혼합이 없이 수정처럼 투명해야 한다. 우리 중 기독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의 위선과 거짓됨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 그곳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서 좋은 외관을 띠게 하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악한 혼합을 보게 된다. 우리는 바빌론의 외관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바빌론은 외적으로 도금되어 있고 치장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큰 창녀

결국 바빌론은 '큰 창녀'(계 17:1), '창녀들의 어미'(5절)라고 불린다. 그녀에게서 많은 창녀들이 태어났다. 그녀는 창녀 딸들을 가진 창녀-어미이다. 창녀는 통제하는 원칙이 없이 남자들과 접촉을 갖는 여자이다. 합당한 아내는 한 남편에게 한 아내라는 통제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님께 와서 이혼의 문제에 관해 그분께 따지려고 했다. 그들은 모세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주 예수님께 말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모세가 그렇게 허용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지, 본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9:3-9). 회복이란 무엇인가? 회복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한 남편에 한 아내만 있던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혼돈이 전혀 없는 통제하는 원칙이다.

많은 남자가 있는 여자에게는 통제하는 원칙이 없다. 그 여자는 오늘은 이 남자와 함께 있고, 다음 날엔 저 남자와 함께 있다. 이것이 혼돈이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 그들은 이번 달에는 어떤 교파에 있고, 두 달 뒤에는 다른 교파에 있다. 그들은 이 교파 저 교파로 옮겨 다닌다. 이것이 혼돈이다. 통제하는 원칙이 없다. 혼돈은 분열을 초래하며, 분열은 혼돈을 낳는다. 분열과 혼돈은 아주 가까운 자매 관계이다. 그것들은 항상 함께한다. 이것이 창녀의 특징이다.

우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오직 한 교회만 있다. 오직 한 머리만 있다. 오직 한 몸이 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유일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유일한 교회는 지구 주위를 도는 하나의 달에 비유될 수 있다. 시카고에서 보는 달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는 달과 동일한 달이다. 하나의 달이 각각의 지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 교회가 각각의 지방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시카고에 있는 교회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 등과 같다. 교회는 지방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하나이다.

신약에 따르면, 한 도시에 한 교회여야 하고, 한 교회만 있는 한 도시여야 한다(행 8:1, 13:1, 계 1:11). 이것이 한 남편에 한 아내라는 통제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한 아내에 많은 남자라는 원칙이다. 이 여자는 통제하는 원칙이 없는 창녀인 바빌론이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편협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내가 한 남편만을 가지는 것이 편협한 것인가? 우리는 창녀의 원칙을 거절해야

한다. 합당한 아내는 항상 편협해야 한다. 합당한 아내는 오직 한 남편만 가져야 한다.

여러분 중 몇몇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그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은 형제들 중 몇몇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려고 결심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창녀의 원칙이다. 창녀는 한 남자가 마음에 들 때 그와 머무른다. 나중에 그녀는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머무른다.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다. 항상 그와 함께 머무르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다. 이와 동일하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우리는 바빌론이 분열에서 나온 혼돈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바빌론의 원칙은 창녀의 원칙이다. 주님의 눈에 오늘날의 기독교는 큰 창녀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형제 요한이 본 이상(異象)이다.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은 그녀가 바르게 말했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창녀인 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다(요 4:16-18).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여셨고,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보았다. 곧 한 머리와 한 몸, 한 남편과 한 아내, 한 그리스도와 한 교회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다. 작은 마을에도 하나의 교회가 있고 가장 큰 도시에도 하나의 교회가 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한 교회가 있다! 더 이상 혼돈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분열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컵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많은 그릇들이 있다. 그러나 바빌론은 참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외모를 과시하려고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각종 걸치장으로 참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열려 걸모습 아래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금잔 속에 혼돈과 분열과 우상숭배와 함께 가증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바빌론은 엄청난 혼합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님의 부름은 그분의 백성이 그녀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18:4).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빌론은 타락했다(2절). 오늘날 기독교 전체는 창녀의 원칙 안에 있는 큰 바빌론이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아 있고 실지적인 길, 311-318쪽)*